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이 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 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Vol.47》 2020년 4월 발행

그리운 우리 고향 ~오이타 후루사토 사진관~

【 우사시 / 분고오노시 】



(우사시)
아지무의 안개 낀 아침



(우사시)
히가시사이야 폭포



(분고오노시)
카구라 회관



(분고오노시)
후코지 마애불

2020년도 국제정책과 소개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 현 관계자 여러분께 금년도 국제정책과 멤버를 소개합니다.

과장
후지이 마사나오(藤井 正直)



작년 럭비 월드컵의 유산을 국제 교류, 글로벌 인재 육성, 외국인과의 공생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참사(총괄)
요시다 토요조
(吉田 豊三)



주요 담당업무:
•여권심사(총괄)
•여권반 인재육성

과장보좌(총괄)
카와시마 에이치로
(川島 栄一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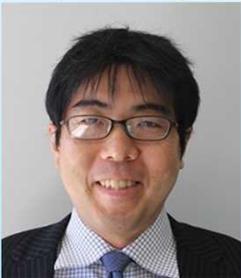
주요 담당업무:
•해외 전략 추진(총괄)
•과내 인재육성

주간
후지와라 요시히로
(藤原 由博)



주요 담당업무:
•해외 전략 추진
•해외 프로모션
•토비타테! 유학 JAPAN

부주간
야마사키 모토히로
(山崎 基広)



주요 담당업무:
•유학생 취직·창업 지원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
•중남미 현인회

주사
사토 요시카
(佐藤 佳香)



주요 담당업무:
•일본어 교실 자원봉사
•외국인 방재 모니터
•일본어 파트너즈

주임
무라카미 미유키
(村上 美夕紀)



주요 담당업무:
•여권 심사, 운송
•여권 업무 위탁
•여권반 예산

주임
카와노 히로키
(河野 宏貴)



주요 담당업무:
•해외 네트워크
•JET프로그램
•국제교류원 활동

주사
시게이시 마이
(重石 麻衣)



주요 담당업무: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
•유학생 장학금
•예산, 결산, 감사

새로운 구성원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과 한층 더 연대하여 해외에서 오이타 현의 PR과 국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이타 국제 교류 프라자에 새로운 소장 취임

2020년 4월 1일에 후츠키이치 토모마사(二日市 具正)씨가 오이타 국제 교류 프라자의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후츠키이치 소장 인사)

작년에는 오이타 현에서도 럭비 월드컵 시합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대성공으로 끝나 현내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피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이벤트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풀뿌리 레벨 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공생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 나라를 이해하고 상대방 또한 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시간을 들여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츠키이치 소장

최근에는 현내에도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내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현의 매력을 해외에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현에서는 당면한 코로나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타테! 유학 JAPAN 귀국 보고회와 지사 방문

토비타테! 유학 Japan으로 영국 등에서 유학한 학생 7명이 2월 18일에 귀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본 사업은 '유학을 통하여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 세계를 시야에 두고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이타 현에서는 2015년부터 프로그램을 발족하여 올해는 7명으로 지금까지 총 33명이 유학에 도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대만으로 파견되어 제조업, 임업, 관광업이라는 세 분야에서 각각 설정한 오이타 현의 과제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선진 사례가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현내 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해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환원하며, 그 내용을 포함한 유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지원 기업 여러분께서는 '이 유학으로 배운 것을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 '단순히 유학 체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 자신이 가고 역할을 짊어지길 바란다' 등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보고회에 이어 열린 지사 방문에서는 유학생이 각자 성과를 지사에게 보고하여, '파견 전과 비교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쁘다. 지원 기업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오이타 현의 글로벌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덕담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학생 중에는 대학 파견 유학, 해외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 등, 대단히 의욕적인 학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중국 교류원을 메지론 해외 서포터로 임명

한국 국제교류원 김진아

시간은 참 빨리도 흘러가 지금도 오이타에 도착했을 때가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그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나 다른 지방에서 오이타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질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오이타는 제2의 고향이 되어 ‘오이타에 오면 2번 운다’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직장 생활에 멍칫할 때도 있었지만 주변 분들 덕분에 대단히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번역, 통역부터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에게까지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어를 알려주고, 교류 사업을 서포트 하는 등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곳 오이타에서 이룰 수 있어서 기쁠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이 「What's up, OITA!」 취재를 통하여 현내 모든 시정촌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 또한 친절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이타를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몸소 느낀 오이타의 매력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또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김 교류원(왼쪽)과 마오 교류원(오른쪽)
메지론 해외 서포터 임명식에서
(중앙은 오노 부지사)

중국 국제교류원 마오 짠팅(苗占婷)

‘세월의 흐름은 화살과 같다’는 깜짝할 사이에 오이타에서 보낸 1년이라는 CIR 임기가 끝나게 되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1년 동안 중국에서 교육 여행, 중국 지방정부 및 Ctrip과 같은 민간 교류 단체의 통역, 출장 강좌·교육 여행 조연·국제 이해 강좌 등 개최, 다양한 자료 번역 및 체크, 한 달에 한 번 「What's up, OITA!」 감수·번역 등을 담당하여 매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현립 역사 박물관과 현립 미술관을 견학하고, 히타시의 센넨 아카리(千年あかり)나 타케타시의 치쿠라쿠(竹楽) 등 이벤트를 체험하고, 고코노에 유메 오쓰리하시(九重夢大吊橋)나 야바케이(耶馬溪)에 가보는 등 오이타 현의 역사·전통·자연·식문화의 매력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지론 해외 서포터로 임명되며 ‘오이타 현의 딸’이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절 한 여러분의 협력과 배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국한 후에는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 오이타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을 살려, 앞으로도 ‘일본 제일의 온천 현’인 오이타 현의 매력을 학생과 친구에게 PR 해나가겠습니다. 오이타 현과 후베이 성, 오이타 현과 상양 시의 가교가 되어서 앞으로도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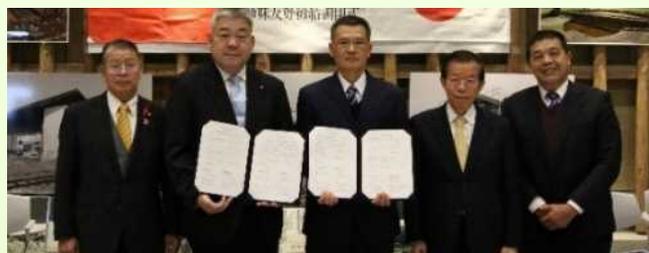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빌며 여러분의 활약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정촌 소식 【구스 정(玖珠町)】



대만 철로 관리국과 자매 우호 체결

작년 12월 6일에 구스 정과 대만 철로 관리국(타이베이 시)은 현존하는 선형 고를 계기로 자매 우호를 체결하였습니다. 구 분고 모리 기관차고는 구스 정



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해외에서도 뿔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장화 시(彰化市)의 선형고는 1932년에 만들어져, 대만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선형고로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스 정과 대만 사이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 관광, 산업,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키리카브랑코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구스 정을 상징하는 키리카부산(伐株山) 정상에서 구스 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된 키리카브랑코. 2월 24일, 3월 21일 이틀에 걸쳐 지역 유지분들이 주최한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이틀 모두 많은 어린이들이 구스 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습니다.

(주의: 키리카브랑코는 상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제71회 일본 동화제는 취소되었습니다.

동화의 마을 구스 정 홈페이지

www.town.kusu.oita.jp

【 구 스 정
기획상공관광과】



Pick Up! 오이타의
「지금」

오이타 현 소식 (3월)

News

【3월3일(화)】 벳푸 블루 라군 구상 쇼닌가하마가 최적



북유럽 아이슬란드에 있는 고급 스파 리조트 ‘블루 라군’. 벳푸 시는 이를 본뜬 야외 온천 시설 구상 건설지에 대하여 후보지 중에서 벳푸 만에 면한 쇼닌가하마(上人ヶ浜) 공원이 접근성과 경관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콘셉트는 (1) 벳푸 온천의 진가를 살린다, (2)자연을 살린다, (3)지속 가능한 시설 정비(환경과의 공생),

푸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지역 연계 거점 만들기), (5) 새로운 온천 커뮤니케이션 창조라는 5항목을 내걸었습니다. ‘원천수’와 ‘사람이 입욕 가능한 온천 용출량’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벳푸 온천. 온천 시설의 기본 이념 속에서 일본 온천문화의 역사 및 세계와 통하는 새로운 온천의 이미지를 가져다줄 예정입니다.

News

【3월4일(수)】 오이타 공항으로 호버크라프트 부활



해상에 떠서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선박 ‘호버크라프트’. 2009년 이후로 운항을 중지했으나, 오이타 현은 오이타 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부활시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박 구입 등 초기 비용은 현이 부담하며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상하분리 방식’을 채용. 앞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빠르면 2023년에는 운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 현재 오이타 중심부에서 공항으로 가는 교통 편은 육로인 버스로 편도 약 1시간이 걸리지만 호버크라프트를 도입하면 벳푸 만을 횡단하는 루트로 소요 시간은 약 25분으로, 이용자 수는 연간 30만~40만 명대를 예상하며 정원은 80명 정도로 배리어 프리 시설로 만들 계획.

News

【3월9일(월)】 무슬림 식품 자판기 벳푸에 등장



벳푸 시 가메가와에 있는 슈퍼 ‘선 스토어’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슈퍼는 사회복지법인 ‘타이요노이에’가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와 지역 서비스, 지역과의 교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다지려는 시도는 현내 슈퍼에서는 처음 있는 일. 취급하는 상품은 말레이

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카레와 스낵, 인도네시아의 컵라면 등으로 17종류. 가격은 300~700엔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오이타 시 타카사키야마 자연공원 내 오사루관 1층에도 같은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었습니다.

From our Reporters

오이타 현 국제교류원이 생생한 OITA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히지 정(日出町)에 있는 야츠시마 신사(八津島神社) 서쪽에는 거대한 산벚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은 400년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며, 높은 지대에 있는 옛 쇼야(庄屋) 자리에서 벚푸 만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에서 이 지역 사람들은 ‘쇼야자쿠라(庄屋桜)’, 춘분 즈음에 핀다는 의미에서 ‘히간자쿠라(彼岸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벚푸 만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벚꽃이 핀 정도를 보고 바다의 수온을 추측하여 고기의 양을 대중했다고 하여 ‘우오미자쿠라(魚見桜)’로도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3월 중순 즈음에 꽃이 피며 예전부터 1년에 한 번 ‘우오미자쿠라 축제’가 열리기도 했지만, 2012년에 태풍 피해로 친목(親木)에 꽃이 피지 않자 축제도 중지되었습니다. 그 후 주변에 접붙인 2세 벚꽃을 길러서 2018년에 축제는 재개되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벤트는 또다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에 이곳을 가보니 따뜻한 기온 탓에 벚꽃은 거의 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파랗고 주변에는 유채꽃이 피어 있어서 아주 아늑했습니다.

내년에도 봄을 알리는 우오미자쿠라의 모습을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셰 신란
(Xie Xin Lan)



현 내의 최신 관광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투어리즘 오이타 홈페이지)

<https://www.visit-oita.jp/>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인회 활동(친목 모임 등), 유학생 OB의 근황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오이타 현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기사제공 및 문의】 국제정책과 담당: 시게이시 【Mail】 a10140@pref.oita.lg.jp